

시론 02

집다운 집

종합 03

"해체 감리까지 넘긴다"... 건축사 업역 침해 논란 확산
사랑에서

전남 지역 뉴스 04-05

영광군, 지역 건축사와 2026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교육 실시
강진군·전라남도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주대 임용민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제4기 총괄건축가 위촉
2026년 전북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성료

광주 지역 뉴스 08-09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AI·BIM시대 건축사미래+공공건축 혁신 세미나 개최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공청회 개최

답사기 10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 마곡지구 답사기

설계경기 11

함평 야구전문타운 스포츠텔 건립사업 설계공모

독자광장 12

취호
책 소개 _ 공간 혁명(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 심리학)
한 장의 사진 _ 금각사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4월호(19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집다운 집



최상철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ybdsc@naver.com

- 1993. 12. - 현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한옥 / 생태건축 / 국가
유산 실측설계
- 1994. 10. - 2008. 6.
전북일보에 〈건축상담〉,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연재
- 2004. 10. - 2005. 3.
전민일보에 〈건강한 집,
건강한 생활〉 기획연재
- 2010. 4. - 2011. 12.
월간 자치광장에 〈최상
철의 집이야기〉 연재
- 2012. 1. - 2014. 12.
월간 열린전북에 〈삶과
건축〉 연재
-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
곳에서 만난 사랑〉, 〈전
주한옥마을〉(공저)

■ 가난한 날

다들 고생 많았다. 지난겨울, 그 모진 한파를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한겨울 추위도 매서웠지만, 봄이 온다는 입춘과 우수에도 연일 영하 10° 이하의 강추위가 몰아닥친 지난 2월, 아파트에서 조차 수도관이 동파되고 실내공기는 뚝 떨어졌다. 정말 맵고 추웠다.

그래도 최신 창틀로 빈틈없이 처리된 아파트에서는, 기존의 느슨한 목재 결구부(結構部)나 얇디얇은 창호지로 마감된 기존 한옥들과는 달리, 앞뒤 창문을 팍팍 틀어 잠그는 것만으로도, 이번 늦겨울 한파를 비교적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들 한다. 그래서 역시 집은 집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집다운 집'에 살지 못했던 것 같다. 요즘처럼 열관류율(熱灌流率)을 챙기기는 고사하고, 대부분 성근 문틈 사이로 사시사철 별빛과 달빛이 흘러들어오는 집에 살았다. 더구나 이번 겨울처럼 한파로 공공 얼어붙는 밤에도, 초저녁 한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만으로 그 긴 동지선달 밤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러니 방바닥이 식을 새벽녘 무렵에는 한 방에서 웅기종기 모여 자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이불을 잡아당기며 다투는 것으로, 그날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때 그 집들은 왜 그리 벽도 얇고, 틈도 많았던지……? 어느 집이 나 창틈, 벽틈이 성글게 나 있었고, 문틈으로는 문풍지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요즘에는 그 틈을 우리 건축의 미학이라고까지 둘러대는 이도 있지만, 그때 그 틈은 정말 지우고 싶은 가난한 날의 흔적이었다.

■ 순환

어느 시공간에서든 세상은 돌고 돌아야 하는 것 같다. 시쳇말로 우주 천체의 회전속도에 맞춰 돈도 돌고, 사람도 돌고, 운(運)도 돌아야 한다. 어느 한구석에서라도 막히면 그 조직 전체의 흐름이 멈추게 되고, 급기야 청색증(靑色症)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다. 젊고 활기찬 시절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순환기 계통의 질환에 쉽게 노출되곤 한다. 그동안 부러지고, 꺾이고, 터지는 것만 병인 줄 알았는데, 인체 내의 순환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더구나 지난겨울처럼 차가운 날씨에 증가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쉬이 찾아오고, 또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도 그런 것 같다. 마땅히 순환되어야 하는 '흐름'이 막히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전화(轉化)되기 때문이다.

몽고의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참혹하게 유린당하던 고려 말, 당시 절박한 염원을 모아 팔만대장경 5,200만 글자를 일일이 새겨 넣은 목판본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완벽하게 보존해온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의 비밀은, 다른 아닌 '순환'에 있었다고 한다. '수다라장(修多羅藏)'과 '법보전(法寶展)'이라는 2채의 판전(板殿)에는, 그 외벽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약간 영성해 보이는 불박이 살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아래 살창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실측자료에는, 남쪽으로 향한 앞벽의 경우 하부의 창이 상부 창보다 약 4배 정도 더 크고, 반대로 북쪽에 면한 뒷벽은 상부의 창이 하부 창보다 약 2배 정도 더 크게 표기되었다. 그렇게 앞뒤 벽면의 살창 크기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해놓음으로써, 내외부 공기가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다닐 수 있도록 고안해놓은 것이다.

■ 정체

그런데 지난겨울,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모처럼 몰아닥친 추위도 추위려니와, 날로 치솟는 난방비 걱정 때문에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그 '집다운 집'에서 틈 하나 없이 한겨울을 나지 않았던가? 자연적으로 실내는 더 밀폐되고 공기는 제자리에 멈춰 서게 되었다. 이리저리 흐르고 돌아다녀야 할 기류(氣流)가 경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말 아무 일 없었을까?

사람이 실내에 장시간 거주하다 보면, 이산화탄소(CO2)나 암모니아(NH4) 가스 등이 배출되게 되고, 더욱이 한겨울 난방장치에서는 일산화탄소(CO)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다. 그래도 봄 가을처럼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창문을 여닫게 되면 다소 희석되겠지만, 이번 겨울처럼 창문을 꼭꼭 걸어 닫게 되면 실내공기의 오염 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실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은 줄잡아도 약 2백여 종이나 된다고 한다. 그 분진이나 석면가루, 곰팡이, 각종 세균 그리고 취사나 난방으로 인한 배출가스 등이 들숨과 날숨을 따라 수시로 우리 인체 내부로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다.

■ 쉼터

최근 급격한 단열성능의 강제는, 우리들의 집에서 일어나던 최소한의 흐름마저 멈춰 세우고 말았다. 어쩌면 지나친 사생활 보호와 에너지 고효율을 추구해온 우리 건축의 패러다임 전환이 빛은 귀걸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는 가난과 추위를 한꺼번에 몰아낸답시고, 허리띠를 졸라 매가며 '집다운 집'을 만들어낸 데는 성공했지만, 그 집에 나 있던 틈이란 틈 모두를 한꺼번에 막고, 가리고, 감춰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 집 안 공기는 그만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우리 인체의 호흡작용, 그리고 밤새 두뇌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안정화'가 이뤄지는 이 공간, 이 쉼터가 부지불식간에 오염지대로 변모해버린 것이다.

이번 겨울 한파가 그걸 체감하는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란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 작품 모집

- 출품자격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 출 품 료 : 없음
- 모집기간 : 상시
- 작품구분 : 준공 작품
- 소개지면 : 광주·전남·전북 지역 지면 회원작품 소개코너
- 제출자료 : 작품사진 JPG 파일 및 치수선 없는 도면 PDF, 설계개요 및 개념 한글파일, PDF 등
- 제출방법 : 광주건축사회 이메일(gjkira@empas.com)
- 문 의 : 건축문화사랑 신문 담당자 Tel. 062-521-0026

“해체 감리까지 넘긴다”... 건축사 업역 침해 논란 확산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축사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건축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건축사의 고유 업역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한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하나의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 해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감리자 지정까지 허용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면서 관리 집중에 따른 안전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사 업계는 감리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리는 시공 및 관리 주체와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동일 주체가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형식적 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해체공사는 구조적 불안정성과 인접 건축물 피해, 보행자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한 고위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안전 확보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사업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자 무작위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 중심 정책 기조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 감리까지 허용할 경우, 건축사의 전문 업무 영역이 축소되고 업역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사업에서 특정 주체에 감리 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건축사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 건설사업관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지역 건축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계 문제를 넘어 지역 건축 생태계의 균형 붕괴와 전문 인력 기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건축사 업계는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체공사에 있어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체공사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감리의 독립성 유지,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보완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랑에서 _ 일백열두 번째

건축사로 일하다 보면 가끔 씩씩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현장에서 정직하게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며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건축사'라는 이름이 가볍게 사용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무소', '건축연구소', '건축설계사' 등 얼핏 보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정식 건축사사무소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당한 절차와 책임을 지키며 일하는 건축사일수록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안전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설계의 작은 판단 하나, 감리의 사소한 점검 하나가 결국은 누군가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건축사'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업명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를 전제로 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공포된 건축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명칭 사용과 명의대여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점은 단순한 규제의 확대를 넘어 건축사 자격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느껴진다.

그동안 제재 수준이 미흡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문제들이 이번 개정을 계기로 조금씩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비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수행이나 건축사업 표현·표시를 금지한 점은,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전문가를 구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된다.

물론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현장에서 이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건축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 철근 대비 인장강도 2배
- ESG경영우수선 (저탄소 제품)
- 건물유지보수 비용 절감
- 철근콘크리트의 취약점 해소
- 내부식성, 비자성, 내화학성, 부도체(열차단성)

건축사

- 조달청 혁신/우수제품 지정
-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인증)
- 녹색기술 녹색자재 인증
- 시설물 생애주기비용(LCC)절감

시공사

- 중대재해 ZERO(낙하, 감전)
- 철근 대비 1/2 중량(경량성)
-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 철근대비 시공 생산성 176%
- 물류비 절감
- 길이 별 납품 가능 (3m~15m)

근로자

- 중대재해 예방
- 근골격 질환예방(경량화)
- 작업 피로도 감소(열차단성)
- 감전 사고 예방(비전도성)
- 고용효과 증대(여성, 노년)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양만) 특화자재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옥암동 단독주택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25, 301호
Tel. 010-3356-9311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95-12번지 / 대지면적 : 339.90㎡ / 건축면적 : 155.45㎡ / 연면적 : 193.74㎡ / 건폐율 : 46.14% / 용적률 : 57.51%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 마감 : 석재마감, 금속루버패널마감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회원알림

최근 광주·전남·전북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사례-1

설계, 입찰공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한 후, 특정 업체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주요 피해사례-2

학교나 관공서 관계자를 사칭하여 명함을 발송한 후, 제3의 업체 물품을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공공기관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구매 요구하는 수법

대응 요령

1. 기관 대표전화 및 공문서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2. 발신자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진위 여부 확인
3. 의심스러운 링크(URL) 및 첨부파일 열람 금지
4. 금전 요구시(계좌이체 등) 즉시 대응하지 말고 기관에 재확인

영광군, 지역 건축사와 2026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간담회 개최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내용 및 행정 업무 협조사항 등 논의



(사진 = 영광군청 제공)

전남 영광군이 지난달 31일 군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건축사와 함께 '2026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내건축사와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해, 개정 예정인 조례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내용 ▲전라남도 건축행정 업무 협조사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에 따른 의견 청취 ▲건축인허가 협조 및 당부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령 준수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협력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건축행정 전달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허가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양방향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교육 실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실무, 실무 관련 질의응답 등...



(사진 =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지난 3월 31일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해체공사 관계자 및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건축사회 회원과 전라남도 및 시·군 해체공사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 해체제도와 최근 해체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교육을 시작했다. 이어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해당 시간에는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과 검토 절차를 비롯해 건축물 해체사고 사례와 해체현장의 부실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법령 해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진군·전라남도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



전남 강진군은 전라남도건축사회와 지난 1일 '재난 피해 주택 신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자연재해 증가로 주택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건축 설계 및 감리비 감면,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신속 지원, 전문 건축사 참여 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소속 건축사가 용역 비용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등 군민 부담 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재난 지원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관련 명부를 강진군과 공유해 행정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주택 신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일 전남건축사회장은 "건축 전문가 단체로서 피해 주민을 위한 공익적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주거 안정을 돕는 따뜻한 민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목포 갯바위 문화권 일원에 2029년까지 건립될 예정...



(사진 =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동부지역본부에서 현대예술과 건축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서남권 최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될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수목비엔날레 아트센터는 미술관 개념에서 확장해 예술인

창작, 교육, 공연, 컨벤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목포 갯바위 문화권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7천11㎡(총 4층) 규모로 2029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디지털아트전시관, 교육체험실, 창작공간 등이 조성되며,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2년마다 열리는 국제수목비엔날레의 개최 공간으로서 국내외 수목 예술교류의 중심 거점 역할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전남 서부권의 낙후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미술 전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전남도는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실시설계와 각종 예비인증 진행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2026년 전남 관광사진 공모전' 추진

2024년 이후 촬영한 작품... 1인당 2점 출품 가능...



전라남도는 자연경관과 관광지,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수준 높은 사진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전남 관광사진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전남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매력 있는 섬, 관광지, 축제, 건축물 등을 주제로 2024년 이후 촬영한 작품을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응모작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다.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작품성, 참신성, 활용성 등이 우수한 작품 26점을 선정해 10월 시상할 예정이다. 총상

금은 1,700만원 규모로 대상(1점) 300만원, 최우수상(3점) 150만원, 우수상(5점) 80만원, 장려상(7점) 50만원, 입선(10점) 20만원이다.

수상작은 전남도의 관광 홍보물과 각종 마케팅 자료, 온·오프라인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출품 규격,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81명 (2026. 4. 9. 기준)

• 입회

- 김소정 건축사 / 소명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로 18, 1층
- 오승미 건축사 / 본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남로 128, 403호
- 광경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바름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26, 1층
- 김소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산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마동 205호

• 변경(소제지)

- 박민영 건축사 / 성화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대석길 65, 202호
- 박우만 건축사 / (주)사우스포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 10, 2층
- 장 한 건축사 / 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청사1길 36, 2층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소이엔씨(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4-29 외 5필지 / 대지면적 : 3,968㎡ / 건축면적 : 1,138.844㎡ / 연면적 : 1,499.834㎡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주요 마감 : 시비석고운다듬, 불연세라믹합금도금강판

설천면 삼도봉장터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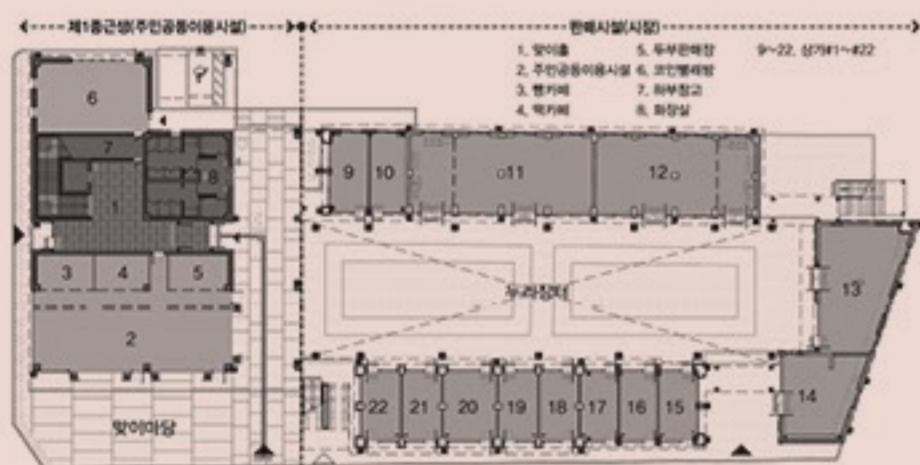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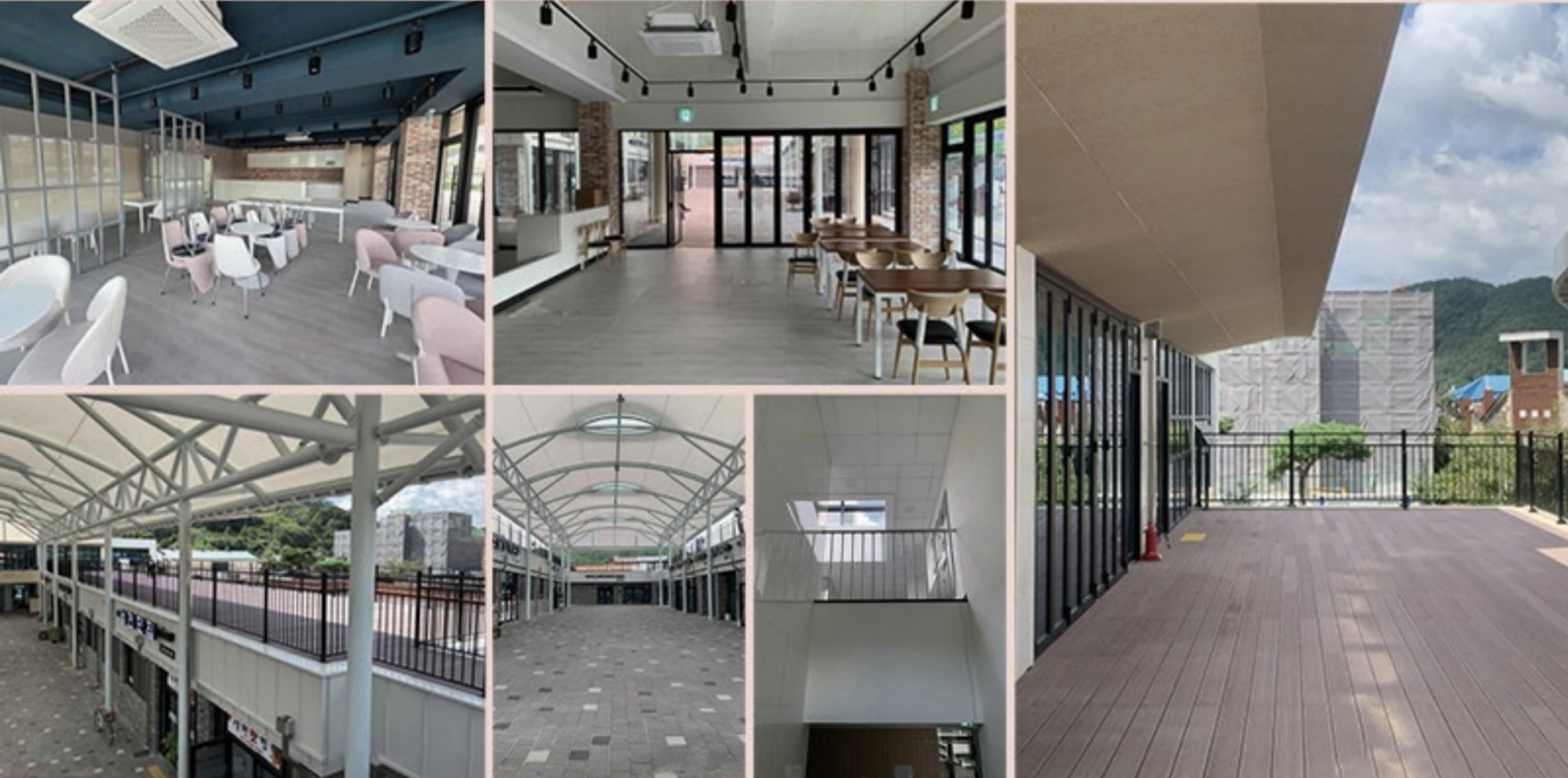
이성영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0, 1-3층 / Tel. 063-252-3378

본 대지는 설천면 중심부의 생활상권과 문화, 커뮤니티 기능이 집중된 요충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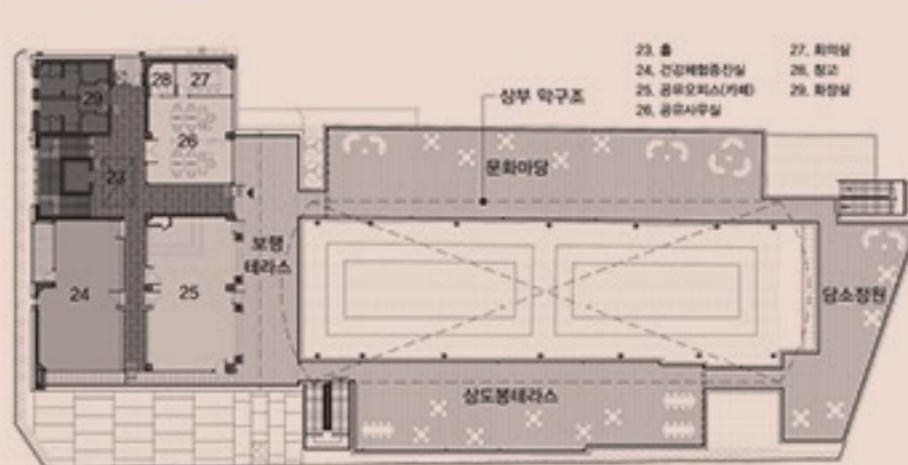
기존 장터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단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과 생활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복합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삼도봉 복합문화장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지역의 오일장·상점가·공공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재생형 프로젝트로서 장터 재구성과 증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상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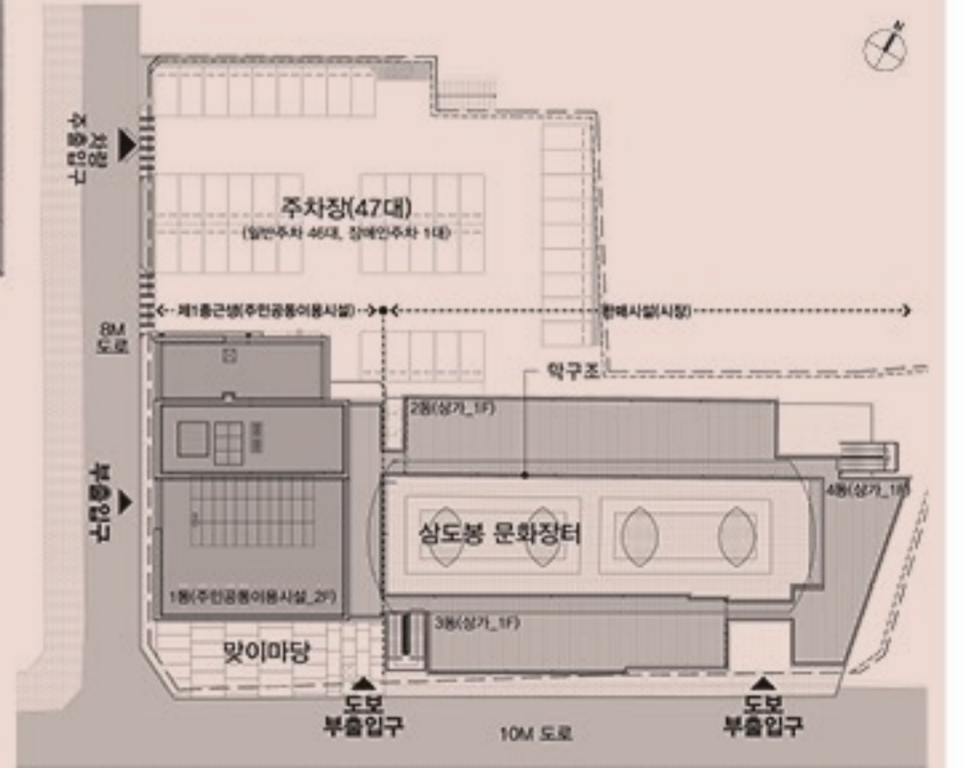
생활 속 커뮤니티와 관광, 상업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장터는 누리장터, 삼도봉테라스, 스트리트마켓 등으로 구성되어 시장과 문화가 만나는 열린 마당으로 기능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일상적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생활문화거점으로 계획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 ~ 6 F. 062)528-0026



전주대 임용민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제4기 총괄건축가 위촉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을 자문..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주대학교 임용민 건축학과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간 정책을 이끌 총괄건축가로 위촉됐다.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임 교수가 지난 25일 '제4기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으로, 공공건축가 29명과 함께 도내 공공건축 전

반을 총괄한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공공건축의 공공성과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총괄건축가는 도의 공간정책과 전략 수립을 총괄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에 참여해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부터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이번 4기 역시 임 교수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별 건축가 배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전북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안내

도내 건축인과 공무원 간 소통 및 화합 도모..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오는 5월 9일 완주군 모악산관광단지 축구장에서 '2026년 전북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건축인과 건축직 공무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시·군 지역별로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친목을 다지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대회는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구경기, 줄다리기, 400m 계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구경기는 오전 8시부터 사전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경기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참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원과 도 및 시·군 소속 건축직 공무원이며, 도청·시군 연합팀과 전주·완주 연합팀, 건축사팀 등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건축인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성료

2026년 사업계획, 수지에산안 등 승인



전북자치도건축사회는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시도 회장 및 소속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수지결산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승인하고,

감사에는 건축사사무소 이건 이응록 회원을 선출하고,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토록 승인되었다. 또한 건축문화 진흥과 협회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건축사사무소 예담 서일석 건축사'에게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을, '(유)도우 건축사사무소 김동균 건축사', '담 건축사사무소 김종왕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우리설계 김종현 건축사'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 유공 회원과 공직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이성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간 우리 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며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간 소통과 협력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전북 건축문화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수지결산 승인 등 건축문화 발전 기여한 공직자 감사장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지난 30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과 전주시 김성수 건설안전국장 등 내외빈과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수지결산 및 2026년 회비수납기준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을 상정하여 승인되었으며, 전주시의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and 건축문화 가치 향상에 기여한 박보경, 류나라, 장필수, 윤창식, 이마음 건축사 5인에게 전주시장 표창장을 시상하고,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직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박광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 경기의 위축과 급변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며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며 전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 한옥시공관리자·한옥설계전문인력 2개 분야 교육생 모집

전국 유일 설계·시공 동시 운영 기관 선정..



(사진 = 남해경 교수 제공)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한옥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한옥시공관리자 양성과정'과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2개 분야에 모두 선정됐다.

한옥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건축사와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교육사업으로, 전북대학교는 두 과정 모두에

선정되며 국내 대표 한옥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북대학교는 한옥설계과정에 첫해부터 지속 선정된 유일한 기관으로, 최근 4년간 설계와 시공 과정 모두를 운영해왔다. 또한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의 한옥 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한옥시공관리자 과정은 건축사와 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으로 4월 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이론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실습은 고창캠퍼스에서 실시된다. 한옥설계 과정은 건축사 및 설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4개월 과정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교육 구성은 시공관리 과정과 동일하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옥 상세도(shop drawing)와 BIM 기반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 교육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와 함께 이론교육, 특강, 현장 답사, 시공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전북대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제작된 한옥 건축물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왔다. 또한 해외 한옥 수출 및 국제 전시를 통해 한옥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8명 (2026. 4. 9. 기준)

• 퇴회

- 엄주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간

• 변경(소재지)

- 김종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1길 24, 1층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 7층
- 엄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엠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4, 401호
- 노동호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6, 3층
- 유창수 건축사 / 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86, 302호
- 박형철 건축사 / J-us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약촌로 174, 1동 706호
- 이동준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6, 301호

• 부고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 모친상 - 2026년 4월 8일(수)

광주기독병원 카딩턴라파기념관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계천로 155 / Tel. 062-226-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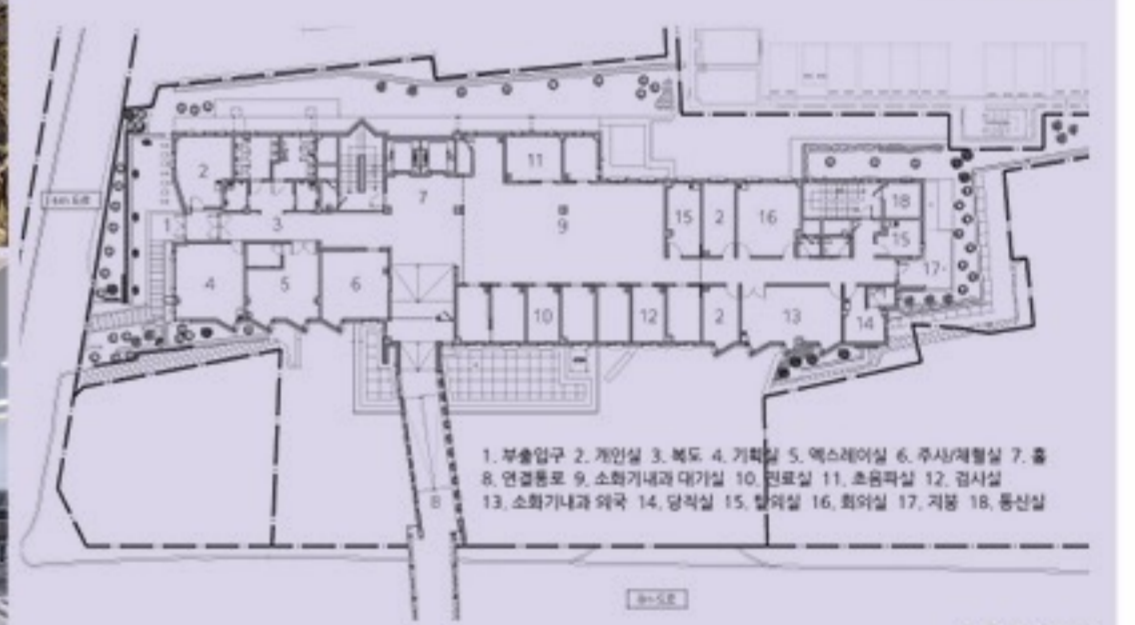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 대지면적 : 2,525.00㎡ / 건축면적 : 1,238.02㎡ / 연면적 : 2,983.99㎡
건폐율 : 49.03% / 용적률 : 77.06%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의료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층에는 카딩턴 선교사의 기념관과 근린생활시설, 필로티로 구성된 부설주차장 진입부를 배치했다. 전면 보행로가 협소한 조건을 고려해 건물을 후퇴 배치하고, 마당을 조성해 휴게와 체류가 가능한 외부 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병원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지향한 결과다. 1층 외래 진료공간은 단절된 본관동과의 동선해결을 극복하기 위해 약 36m 길이의 연결통로로 이어진다. 이 통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길'로서의 공간 경험을 목표로 ▲바닥 폭과 층고의 변화 ▲보이드와 솔리드의 대비 ▲구조 시스템의 전환 ▲매스의 꺾임과 어긋남을 통해 연속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체험을 유도한다. 외관은 전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주변 근대건축의 재료적 맥락을 잇고, 벽돌을 내부까지 연속으로 적용해 내·외부의 경계를 흐린다. 이 건축은 기능과 기억, 장소성이 균형을 이루는 일상의 장소가 되기를 지향한다.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6년도 | 4월 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2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 (2) 실무교육 계획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인정 시간	교육비	인원
4월 29일(수) 13:30~15:30	전문 교육	사무소 운영을 위한 세무상식	권세홍 세무사 (권 세무회계)	광주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2시간	30,000원	100명
4월 29일(수) 15:30~17:30	전문 교육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정재용 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2시간	30,000원	100명

- (3) 교육대상 : 건축사
- (4) 신청기간 : 4월 27일(월)까지
- (5) 출석인정
 - 매 과목당 교육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출석체크
 -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장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7)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배너 위에 "수강신청" 클릭 ⇒ 실무교육 선택 ⇒ 과목명 클릭 후 결제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건축관계기관 공무원 5인에게 감사장 전달...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홀 2층에서 강필서 회장과 회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광

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 심철의 광주시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정계 인사들과 시·도건축사회장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1부 행사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박상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더공감) 공로상 및 감사패를 수여하고 치하하였다.

또한 강필서 회장은 건축사회 및 광주건축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한 동구청 건축과 민지현 건축허가팀장, 남구청 건축과 김한울 주무관, 광산구청 건축과 오용표 주무관, 북구청 최다현 주무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안전지원팀 장준영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와 함께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44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 연금관리회 제20차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했다.

강필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광주건축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능력을 다하여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I·BIM시대 건축사미래+공공건축 혁신 세미나 개최

건축사 및 임직원·학생 등 100여명 참석...



건축사정책연구소와 광주여성건축사회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에서 'AI·BIM 시대 건축사 미래와 공공건축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BIM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건축사의 역할 변화와 공공건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축사와 설계사무소 직원, 건축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정은길 건축사가 'AI·BIM 시대 건축사 미래와 공공건축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건축사는 인공지능과 빌딩정보모델링 기술이 건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교육에서는 이기상 건축사가 'AI 기반 공사감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건축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감리체계 고도화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건축사정책연구소 정명철 소장은 "AI와 BIM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축 분야의 발전과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공청회 개최

2중 주거, 우수디자인·공공기여시 30%P 높은 250%까지 인정...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면개정(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8년 만의 용적률 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2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준·허용·상한'의 3단계 구조로 개편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을 190% 이하로 낮추고, 허용 220%, 상한 25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편했다. 친환경 에너지 도입, 녹색건축, 우수디자인 적용, 도로 셋백 및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이행할 경우 최대 30%포인트

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시 기준 210%, 허용 240%, 상한 270%로 조정됐다. 공공기여와 설계 수준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20%포인트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용적률 추가 적용의 핵심 요소인 우수 디자인과 기부채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시설 확보와 건축물 디자인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5~7월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8월 중 예규를 발령할 계획이다.

광주 동구청, '2026 광주 국가유산 야행'

옛 전남도청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일 예정...



광주 동구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통해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근대 건축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약 2년 5개월간의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은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민주화의 상징이 된 옛 전남도청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근대광주와 변화된 시대정신을 건축유산으로 새롭게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1930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전남도청 구본관과 회의실은 한국인 건축가 김순하가 설계한 광주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시 지정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특히 회의실 설계도면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당시 건축 과정과 설계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번 야행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건축가의 고민'에는 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이 참여해 전남도청 건축의 배경과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 낼 예정이며, 당시 시대상을 연극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건축가의 방'에서는 설계 도면을 중심으로 건축가 김순하의 삶과 작업 세계를 조명하고, '건축미로 탈출', '100년 후의 건축'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 유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근대 건축 유산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간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3명 (2026. 4. 9. 기준)

•입회

- 이재웅 건축사 / (주)더시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604A호

•퇴회

- 김현중 건축사 / 미주 건축사사무소
- 김정훈 건축사 / 삼인 건축사사무소

•결혼

- 이정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오 / 본인 결혼 - 2026년 4월 25일(토)
- 문강욱 건축사 / (주)승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2026년 4월 25일(토)
- 김진우 건축사 / 바오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6년 4월 4일(토)

•부고

- 진수성 건축사 /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4월 5일(일)
- 박향수 건축사 / 차오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6년 3월 31일(화)
- 문강욱 건축사 / (주)승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6년 3월 26일(목)
- 안길전 건축사 / (주)일우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3월 23일(월)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정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 마곡지구 답사기

김홍용 건축사 / (유)단 건축사사무소



2026년 3월 이번 마곡지구 답사는 계획된 도시 안에서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고, 사람과 도시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마곡지구는 연구시설, 병원, 문화시설, 공원이 함께 배치된 복합 도시로, 전반적으로 정돈된 질서와 여유 있는 보행 환경이 특징적이었다. 건물들은 각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과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절한 거리와 간격 속에서 도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걷는 동안 느껴졌던 것은 '잘 정리된 도시'라는 인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성격의 건축들이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 번째 건물은 이대 서울병원이다.

멀리서부터 단단한 인상을 주는 건물이었다. 강직하게 형성된 매스는 병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안정감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 위를 감싸는 유리 루버는 이 단단함을 한층 부드럽게 풀어주는 요소였다. 빛을 조절하는 기능을 넘어서, 시간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표정을 만들어내며 건물의 외관에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내부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조금 달라진다. 자연광이 스며드는 공간과 여유 있게 마련된 휴게 공간들은 병원이라는 장소의 긴장감을 낮추고, 머무는 사람에게 조금은 편안한 시간을 허락한다. 기능과 배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공간이었다.



두 번째 건물은 스페이스K이다.

스페이스K는 조용하지만 밀도 있는 공간이었다.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외벽은 재료 그대로의 질감을 드러내면서도, 매우 정제된 디테일로 마감되어 있었다. 거무집의 흔적과 이음새마저 하나의 질서처럼 느껴졌고, 그 단정함이 공간 전체에 긴장감과 집중도를 만들어낸다. 화려함 없이도 충분히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곳에서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걸음이 느려진다. 건축이 조용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 번째 건물은 삼진제약 마곡연구센터이다.

삼진제약 연구센터는 외부에서 바라본 모습만으로도 성격이 분명한 건물이었다. 정제된 매스와 반복되는 입면은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연구시설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태도가 느껴졌다. 특별히 과장되지 않지만, 그 절제된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으로 남았다.



네 번째 건물은 엑셈(Exem)이다.

엑셈 사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르게 읽히는 건물이었다. 정면에서는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이지만, 측면으로 이동하면 매스가 분절되며 깊이감이 드러난다. 우측과 좌측에서 바라볼 때 각각 다른 실루엣을 만들어내며, 하나의 건물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을 하나의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경험되는 대상으로 느끼게 한다. IT 기업 특유의 유연한 이미지를 공간적으로 풀어낸 사례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물은 서울식물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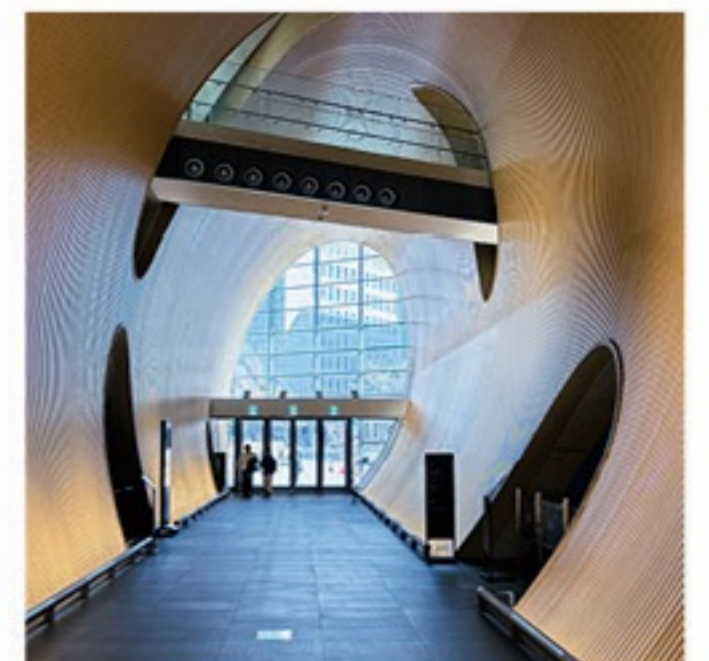
서울식물원은 마곡지구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심 공간이었다. 넓게 펼쳐진 녹지와 온실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단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온실 내부의 다양한 식물 환경과 외부 공원의 열린 공간은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연속된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곳에서는 도시의 속도가 잠시 느려진다. 건축과 자연이 만나는 지점에서, 공간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섯 번째 건물은 더넥센유니버시티이다.

더넥센유니버시티는 절제된 형태 속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건물이었다. 외관에 적용된 루버는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하며 입면에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동시에 햇빛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기능과 표현이 자연스럽게 결합된 요소였다. 전체적으로 정돈된 구성 속에서, 과하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건물은 LG아트센터 마곡이다.

LG아트센터 마곡은 재료와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깊게 남는 건물이었다. 내부에 들어서면 노출 콘크리트가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묵직한 재료감이 공간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도, 높은 층고와 넓게 열린 로비가 그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빛이 스며드는 방식과 재료의 질감이 어우러지며,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공간 경험이 완성된다. 이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마곡지구는 질서 있게 계획된 도시이지만, 그 안의 건축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직한 매스, 절제된 재료, 반복되는 입면, 그리고 열린 공공 공간까지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겹쳐지며 하나의 도시 경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건축은 결국 형태를 넘어서 사람의 움직임과 감각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이었다. 걷고, 바라보고, 머무르는 그 과정 속에서 건축은 비로소 도시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마곡지구는 아직 완성된 도시라기보다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곳에 어떤 장면들이 더해질지, 그 변화의 과정 또한 기대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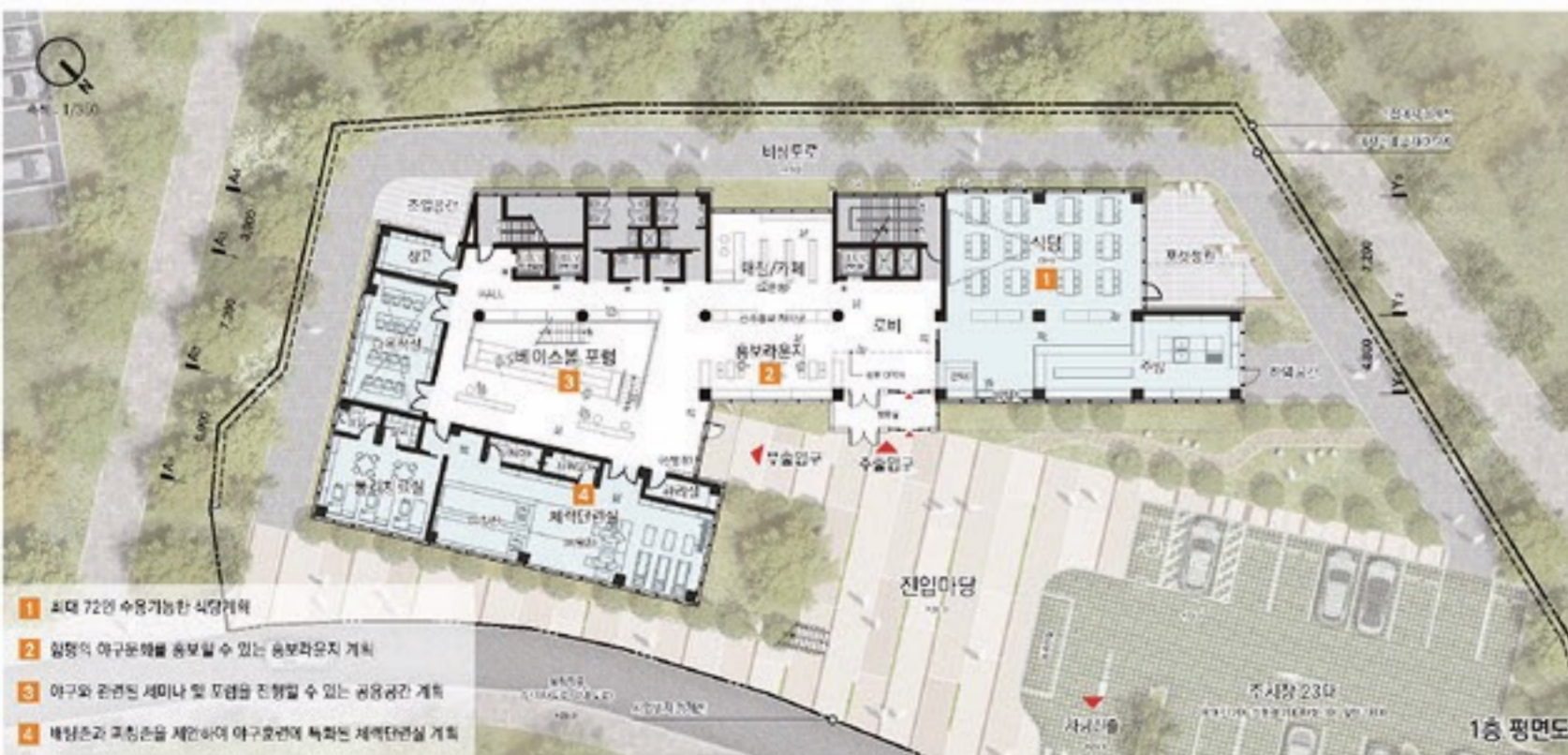
함평 야구전문타운 스포츠텔 건립사업 설계공모

현재,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일원에는 전남야구장, 함평 베이스타운 및 함평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해마다 많은 생활체육 및 엘리트야구인들이 찾고 있으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각종 전지훈련 및 리그 유치 등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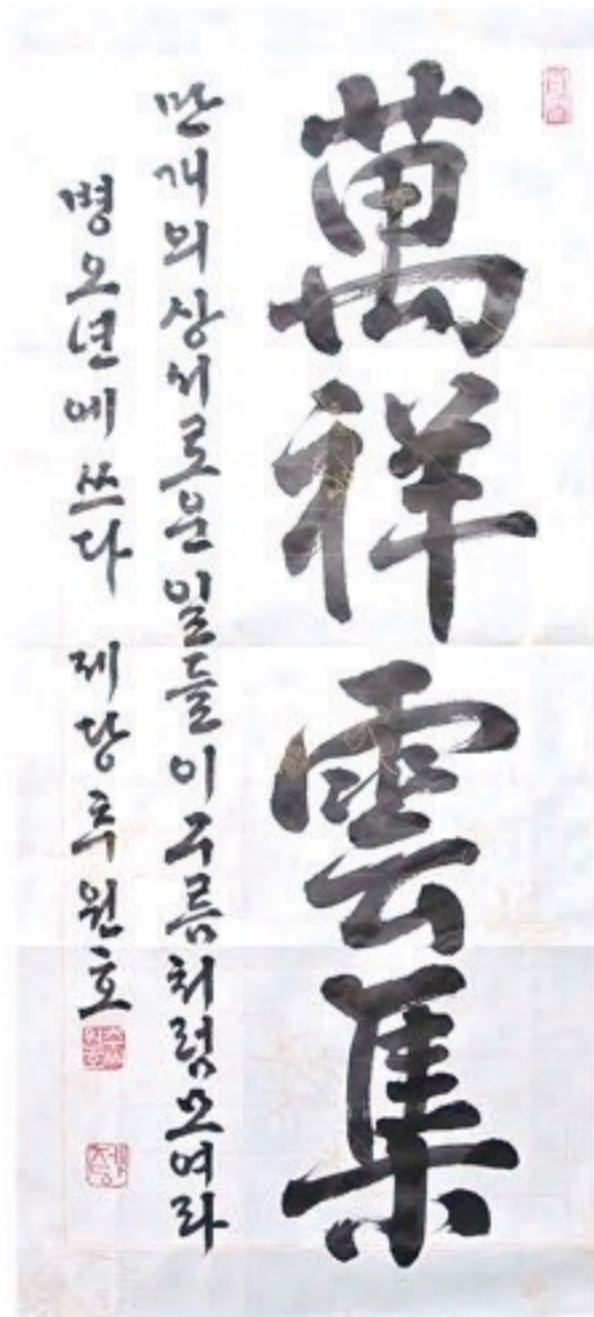
심사위원 : 송창영(광주대학교), 이종식(송원대학교), 양지훈(에스이오피건축사사무소), 김원배(상신건축), 천용원(건축사사무소에담)

-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894번지
- 대지면적 : 57,752㎡
- 연 면 적 : 2,520.00㎡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체육시설
- 규 모 : 지상 4층
- 용 도 : 숙박시설

당선작
주 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건



휘호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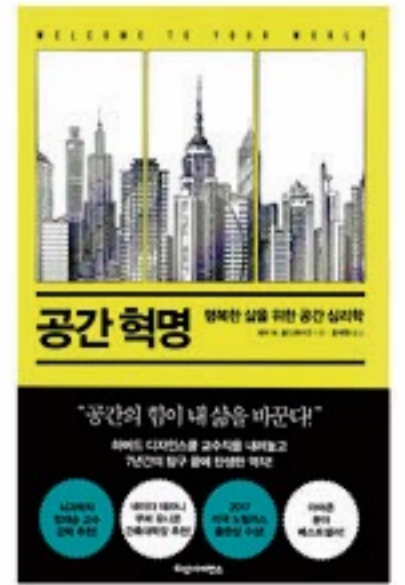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공간 혁명(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 심리학)

세라 W. 골드헤이건 / 다산사이언스 / 2019. 08. 19.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공간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지는 않는다. <공간 혁명>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인식을 깨고, 공간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 나아가 삶의 방식까지 형성한다는 사실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험의 장'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저자는 인지신경과학과 환경심리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빛, 색, 소리, 질감과 같은 요소들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감각적 자극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특정 공간에서 창의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뇌가 공간에 반응한 결과라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는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공간의 분위기'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이었다. 인간은 단순히 머리로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공간을 경험하며 기억한다. 저자가 어린 시절 피렌체에서 경험한 감정의 변화처럼, 특정 공간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지만 우리는 이를 무연으로 치부하고 지나쳐왔다. 이 책은 바로 그 '무심코 지나쳤던 경험들이' 사실은 공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건축 사례를 통해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고대의 건축물부터 현대의 도시 공간까지, 각각의 장소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감정과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간이 사람의 자존감과 역량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건축이 단순히 외형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좋은 공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아름답거나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공간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공간이 진정으로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건축이 단순한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책은 나에게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지금까지는 형태와 기능,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와 공공공간 설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간 혁명>은 단순히 건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준다. 결국 건축이란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한 장의 사진 _ 봉한샘 학생 작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금각사

1 Kinkakujicho, Kita Ward, Kyoto, 603-8361 일본

건축문화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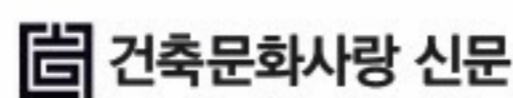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 편집인: 임현정
-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 전담기자: 김중문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아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500,000원
- 하단광고 : 250,000원
- 하단1/2광고 : 15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